

신안군, '맹그로브'로 탄소중립 선제 대응



맹그로브를 식재하고 있는 모습.

도초도에 탄소 흡수 뛰어난 '블루카본' 수종 시험 재배 시작 맹그로브 종자 520개체 이식 후 지역 갯벌 적응 등 모니터링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전남의 한 지자체가 '블루카본(Blue Carbon)'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화제이다.

그 주인공은 천혜의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신안군이다. 신안군은 최근 탄소흡수와 저장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의 대표수종인 '맹그로브(mangrove·사진)'를 지역내 도입하기 위해 재배시험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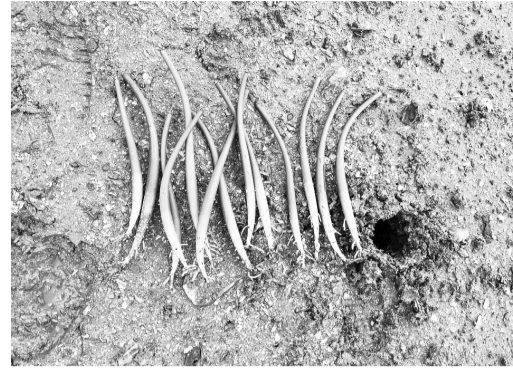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맹그로브·해초대·염생식물 서식지 등으로 나뉜다. 맹그로브는 아열대·열대 해변이나 하구에 자라나는 관목 또는 서식지를 말한다.

군은 지난 11일 도초면 죽연리 갯벌에 현지 적응

실험을 위한 맹그로브 종자를 심었다.

이번에 식재한 맹그로브는 총 520개체로, 일본산 맹그로브 종자 120개체와 베트남산 400개체이다. 지금까지 현지 적응시험을 위해 이식된 맹그로브 종자는 잘 생육하고 있으며, 식재 후 생장 특성과 우리 지역 갯벌과 기후환경에서의 적응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도초도는 천혜의 청정해역의 해양생물자원과 육상 생물자원의 종보전 및 서식지 보호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마을지구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도별 중점관리 시행 중이다. 또한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신안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식재된 둥근 맹그로브(Kandelia obovata)는 최저기온이 영하10도 이상인 곳에서만 생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협소하므로 외래식물로서 생태계를 교란할 염려도 없다.

맹그로브가 우리나라 갯벌과 섬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신안의 탄소흡수

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카본은 탄소 장기 저장환경 형성, 빠른 탄소 흡수 속도 등의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육상과 달리 토양이 바닷물에 잠겨 산소가 매우 부족한 환경을 형성하므로 탄소저장 효과가 높아 탄소 장기 저장환경을 형성한다.

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속도는 육상 대비 최대 50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량 군수는 "현재 탄소흡수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나 탄소중립에 있어 숲과 나무는 지대한 잠재력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발굴 및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맹그로브 도입을 통해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블루카본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이젠 무안서도 최신 개봉작 만나세요”

‘작은영화관’ 26일부터 운영...2개 상영관 183석
2D 7천원·3D 9천원...대형 극장의 60~70% 수준
25일 군민 선착순 현장 무료 발권 시사회 진행도



‘영화관 불모지’ 무안군에 새 영화관이 생겼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6층에 들어서는 ‘무안작은영화관’ <사진>이다. 오는 22일 개관식을 갖고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군에는 예전 개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이 있었다가 문을 닫은 이후 지금까지 영화관이 없어 신속한 영화관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무안작은영화관이 개관함에 따라 최신 영화를 비롯한 여러 장르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무안작은영화관은 1관 77석, 2관 106석 등 총 183석 규모의 상영관과 2D 뿐만 아니라 3D 입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다. 팝콘·음료수·커피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매점도 운영된다.

무안작은영화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최신 영화를 저렴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람료는 2D 영화 7000원, 3D 영화 9000원. 대형 극장가의 60~70% 수준의 싼 가격으로 전국 동시 개봉 최신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영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이다. 관람권 예매는 인

타넷(무안작은영화관 검색)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개관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참석자 대상 군민 초청 시사회가 열린다. 또한 23-24일 읍면별 초청 대상자와 관내 어린이집 원아, 25일 군민 선착순 현장 무료 발권을 통해 시사회가 진행된다.

김산 군수는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 건립돼 뿌듯하다”면서 “앞으로 무안작은영화관이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큰 영화관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6·25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개토제 봉행

신안군은 지난 17일 일지면 대거리 일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집단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을 앞두고 희생자 위로를 위한 개토제를 올렸다.

개토제는 흙을 파기 전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이며, 이번 행사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발굴에 참여하는 이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안임자유족회,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례와 추도사, 시삽으로 마무리하며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군은 국비 1억 5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확보해 8월 말까지 유해발굴을 추진하고 수습한 유해와 유품은 추후 세종시 추모의 집 안치 등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실규명에 힘을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해양경찰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완도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은 내달 2일까지 수산물 품질 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들의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해 위해 수입·제조·유통 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횃

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수입산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kwangju.co.kr



완도해양경찰서가 휴가철을 맞아 인기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단속에 나섰다.

해남군 여름철 자연재난 최소화 총력

폭염대비 시설 등 현장점검

해남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 대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산사태·하천재해 등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집중 호우 등 발생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관부서·기관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이미 인명피해 우려지역 10개소, 소하천 272개소 등에 관리실태 점검을 마쳤으며,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시찰 활동 강화와 각종 수리시설 점검 등도 실시했다.

아울러 군은 폭염 피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부서, 2개 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 저감 시설 확대 설치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